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13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Bruce Waltke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3, 저주의 시편입니다.

물론 우리 뒤에는 성경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교부들과 각 시대의 훌륭한 성인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토벤, 바흐 등의 훌륭한 음악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대의 상속자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선생님들의 후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이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고 악한 것을 내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차별을 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세요.

우리에게 당신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적절하고 유익하게 연구하는 데 필요한 은총을 저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은. 우리는 그동안 시편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살펴왔고 이제는 비판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찬양시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찬양 시편 92편이나 감사 시편 92편으로 아침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시편의 청원에 관한 이 방대한 자료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배적인 음표임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탄원시나 애도시입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거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기 서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애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성숙, 영적 발전,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죽음과 죄와 죽음과 마귀에 대한 승리를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을 통해 그분은 악을 이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가 이 자리에 선택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는 시편의 청원의 다양한 측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 중 하나는 시편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전에서 탄식하기 위해 시편을 준비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때때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을 말하자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씨를 자양분으로 삼는 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성전을 영적인 삶의 근원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 중 하나는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기본적으로 적이 실제로 영적인 적이라는 광범위한 도덕적 용어를 모두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궁켈의 나쁜 해석으로 적에 대해 끝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궁켈은 이 시편이 두 번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두 번째 동안 기록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왕은 없습니다. 정치적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기자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픈 사람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더 상상적이에요. 그리고 그는 원시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가

말하자면 최선의 이성적 사고가 아닌 자신의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수는 실제로 박해받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놀랍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제2성전 시대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제1성전 시대의 왕을 본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른 모티프를 고려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난 곳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소라는 다른 모티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향하거나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죄라는 시편 4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어가 죽어서 원래의 산란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새가 겨울에 태양과 따뜻함을 향해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성자는 그의 구원이나 그녀의 구원을 위해 직관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주소에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요 부분은 청원서 자체입니다. 그리고 음, 아닙니다. 그리고 애도를 본 다음 청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하지 않고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청원은 당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한 신성한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법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부 시편은 참회적이고 때로는 무죄에 대한 항의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에 대해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그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악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편에는 내가 결백하다는 항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시간에 우리가 논의한 내용의 주요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확신 부분을 살펴보고 그가 확신을 갖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왕이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었던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이곳에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들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공동 애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시다. 그건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공동 애도 시편인 시편 44편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신학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세 번째 부분이 신학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시편의 신학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나는 그것으로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주의 시편 문제가 나온 후에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원시편을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노트 164페이지에 저주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저주의 시편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호칭입니다. 그들은 적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수가 그들에게 행한 부당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청원 시편은 약 50편 정도였습니다. 이 시편들은 보통 63편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그들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그들 중 약 35명은 구원의 긍정적인 측면을 넘어 적을 징벌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복수하시고 벌하실 것이라는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164 페이지에서 정의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벌하심으로써 원수가 그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 복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복수를 위한 기도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정의이기 때문에 복수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복수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믿습니다. 정의는 악이 갚아지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정의하고 싶다.

분명히 이 시편들은 산상수훈에 비추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입니다. 그것은 국가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형제 되심과 자유주의의 모든 사람들의 형제 되심에서 나오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산상수훈의 윤리를 취하여 국가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다른 쪽 뺨도 돌릴 것이다.

국가는 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는 매우 다르다. 교회의 윤리는 원수를 위해 죽는 십자가입니다.

국가의 윤리는 칼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분은 잘못을 복수하기 위해 칼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국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윤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약성경이 신권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구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서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교회가 영적인 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와 함께 살고 있으며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는 데 의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정의를 수호하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이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수호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교회가 이런 종류의 박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그것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만일 그들이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고 하신 산상 수훈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악에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박해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기들을 바위에 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엔 그들은 바보이고 눈이 먼 사람들이다. 스데반이 돌로 쳐죽이면서 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합치고, 다른 쪽 뺨도 돌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온갖 종류의 해결책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책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조화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 시편을 사용하고 이 시편 안에 있는 이 모티브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래서 문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우선, 받아들일 수 없는 해결책은 내가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를 말하는 대신에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언,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청원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나는 독자들에게 거기를 제공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에서는 지시형, 즉 명령형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가 특정한 미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벌을 내리실 수 있다면, 그는 벌을 주실 것입니다.

언어의 놀라운 모호함이지만 번역가는 그것이 희망사항인지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히브리어 문법을 쓸 때

당신이 고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문법을 쓴 이유는 내가 주석을 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주석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은 문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앉아서 문법을 쓰고 그 배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전형적인 독일식 서론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에 입문하지 않고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형태도 있지만 모호함이 없는 형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솔루션에는 지시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번역가들은 대체로 이 경우에는 거의 99%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청원입니다.

165페이지. 또 다른 해결책은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기독교인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악마적인 것에서부터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것까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옳지 않다고 말하는 단계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틀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만,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여전히 틀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극단적인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구약성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Kittel이 만든 것입니다. 정복과 복수에 대한 갈증만을 생각하는 비열한 개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꽤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편에 어려움을 겪는 CS Lewis입니다. 나는 그를 인용하는데, 더욱 악마적이다.

한 구절에는 아름다운 137절이 있는데, 여기서 바벨론의 아기를 잡아다가 길바닥에 그 두뇌를 치는 자에게 축복이 선언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악마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 관점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는 CS Lewis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변증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경에 대한 충분히 확고한 견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그들이 악마적이고 그것이 틀렸다고 쓸 수 없습니다.

나는 방금 알리스테어 헌터(Alistair Hunter)가 쓴 『시편 소개』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당신이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는 단지 이 책에서 그는 완전한 자유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좀 더 온건한 것은 Beardsley의 진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황혼기에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는 이와 같은 일에 은유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황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 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여전히 옳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John Bright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자, 만약 그가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졌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말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지만 인간의 영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표현이지만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Albert Barnes가 보낸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에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를 위해 보존된 일은 부분적으로 성화된 인간 본성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건한 표현 방식은 실제로 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황혼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충분히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꽤 명확하고 주변에 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이 황혼을 부분적으로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맞나요? 그들이 틀렸나요? 교리에 유익합니까, 아니면 교리에 무익합니까? 그들은 교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깨끗하게 자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반대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연속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영감에 관한 나쁜 교리입니다. 그리고 시편 자체에는 성령께서 성경의 이 부분을 검열하셨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검열하고 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경륜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들은 모두 적을 파괴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는 실제로 적을 파괴하는 구약 성서의 성전 모티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명하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전쟁에 나갈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세가 주님께서 원수들을 흠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곳과 별개로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선지자들에게도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적을 제거하시는 일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낱실과 씨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으며, 충분히 흥미롭고 찬성하는 태도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20절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진영이 황폐하게 되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의 자리 곧 그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멸망당할 유다에게도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 관해 만족스럽게 그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시편에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을 정당화합니다. 다섯째, 신약성서, 특히 묵시록에서 비슷한 기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하신지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미 영광을 누리고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아직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왜 그들이 악마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천국 자체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특정 적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화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도덕적 분노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분노가 없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제압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도덕적 분노가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 문제는 더 이상 도덕적 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분노 없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 마이크.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저쪽에 있는 ISIS처럼 기독교인을 죽이는 데 적용하십시오.

중동에는 IBS 환자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 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죽음과 파괴, 도덕적 고통, 무고한 사람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는 쿠르디스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아, 그들의 피가 군대에 의해 복수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저기 있는 주님의 적들에 맞서 기도할 때 우리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응, 그러면 바로 무너지겠지. 다시 말하지만, 나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모자를 씁니다. 나는 교회의 모자를 쓰고 국가의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자를 쓰면서 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 생각에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응답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나는 다른 쪽 뺨도 대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저항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가가, 의를 위해 세워지고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유엔과 미국이 가능한 한 개입하여 살인자들을 처벌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 분노를 가지고 정의를 옹호하고 가능한 한 적을 처벌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좋아요.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예언이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을 왜 뽑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틀렸다. 나는 왜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지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적을 공격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제가 원래 이 자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저는 오레곤에 있었고 이것은 198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몇 년 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연히 Oregonian을 읽고 있었는데 EM Paisley가 미국으로 건너오고 Alexander Haig가 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이것은 지미, 아시다시피 초기 레이건 행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헤이그(Alexander Haig)가 데려왔고, 국방장관이 이안 페이즐리(Ian Paisley)를 데려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밥 존스입니다.

아, 그리고 Alexander Haig는 Ian Paisley를 반대했고 Bob Jones는 Ian Paisley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Alexander Haig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존스의 학생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알렉산더는 엉덩이와 허벅지, 뼈와 골수, 심장과 폐,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밥 존스 학생들, 복음주의 학생, 학교에게 그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헤이그를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찢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부한다. 나에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실천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결 방법을 고민하면서 다음 섹션을 '해결책을 향하여'로 부르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67페이지의 '해결책을 향하여'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들은 성도들에 의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불의를 겪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불의를 살펴보십시오.

이 글은 Derek Kidner, 160세의 글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응. 글썄요, 어쨌든 Note 366이군요, Rory Prest.

응. 나는 그것을 잊었다. 그는 시편에 나오는 대적에 관한 논문을 쓴 한 지역의 학생이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안전과 경제적 풍요라는 편안한 관점에서 시편을 읽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전혀 이유가 없는 노골적인 공격과 심한 착취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토록 초연한 논의가 명백한 악의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뤄질지 의문이다.

즉, 그는 그들의 심각한 불의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집에서 편안하게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도는 의롭고 공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문은 민사 법원이 정의를 옹호하지 않거나 정의를 옹호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즉, 국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 사울과 같은 왕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디로 향합니까? 그는 정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는 공의를 수호하시기 위해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정의를 옹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결점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옹호하시고 악을 처벌하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교리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전한 교리입니다. 나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응에 대한 구약의 관심과 일치합니다. 함축적인 시편은 정의에 대한 매우 높은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믿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CS Lewis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편에 대한 묵상에서 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교 문헌에는 그러한 표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 더 확고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시편의 시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명한다면 우리는 이교 작가들에게서도 같은 종류의 일과 더 나쁜 일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아마도 내가 이교 문헌을 더 많이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약간의 그리스어, 약간의 라틴어, 고대 노르웨이어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지 전혀 확신하지 못합니다. 즉 그는 이교 문헌에서 이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음탕함, 잔혹한 무감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냉혹한 잔인함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분노나 증오의 사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인상은 유대인들이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복수심이 강하고 독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 그들의 문학은 음탕합니다. 폭력적이지만 도덕적으로 분개하지는 않습니다. 루이스는 몇 년 전에 시편에 대한 성찰을 썼습니다.

그가 이교 문학에 대해 말한 것은 내 생각에는 음탕함과 폭력으로 가득 찬 우리 문학에도 해당됩니다. 빌 베넷(Bill Bennett)이 그의 책에서 지적했듯이 도덕적 분노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도덕적 분노가 부족한 이유는 옳고 그름을 옹호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취했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성 시대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도덕적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도덕적 분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이스가 이교 문학에 관해 말한 것은 우리 사회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묘사한 내용은 오늘날 나에게 놀라운 일로 묘사됩니다.

31페이지, 그의 책에서 167페이지 하단에 분노가 없다는 것, 따라서 분노가 없다는 것, 특히 우리가 분노라고 부르는 종류의 분노는 가장 놀라운 증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분노의 부족은 놀라운 증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교도들보다 더 심하게 저주했다면, 그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옳고 그름을 더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욕설을 보면 그들은 보통 화를 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지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희생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는 만큼 분명히 미워해야 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의로운 주님에 대한 생각은 비록 그 배경에만 있을지라도 그가 얼마나 끔찍하게 지체하고, 심판하고, 복수하는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롭고 그들이 바로 제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도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나오는 도덕적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성이 강한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성경을 가져갔고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것이니,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곧 정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인 과부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뻔뻔스럽게도 판사가 옳은 일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판사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계속 미루시겠느냐? 내가 말하노니 그는 그들이 속히 정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시편들을 검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유용한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과 도덕적 분노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 복수하실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7장 23절과 시편 6장 8절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장래에 심판과 영벌과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님이 정의의 개념을 지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때가 오기 전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점 c는 기도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엄청난 불의에 대한 복수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즉,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믿음의 진술입니다.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복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편 8장 2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손에 맡기는 원수와 자기 복수자를 제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실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는 복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사울에 대해서도, 심한 불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기쁨 부음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처분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저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신학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David의 삶에서 볼 수 있다고 Kidner는 말합니다. 개인적인 공격을 받을 때 다윗보다 더 관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울과 압살롬에 대한 태도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자 학개를 여기서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사이에 판단하셨느니라 그녀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라멕처럼 스스로 복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원수를 갚아주시면 칠배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수할 것이다.

그렇구나, 어디 보자, 저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다. 뭐라고요? 응. 글썄, 한번 찾아보자.

나는 창세기 4장에서 그 구절을 엉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서 곧바로 이해해 봅시다. 라멕, 됐어요.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그의 아내 아다와 스가르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다치게 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하여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이 일곱 번 복수했다면 라멕은 77번 복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고 스스로 복수했습니다.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 논평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라멕은 자신의 복수를 했다는 이유로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응. 좋아요. 에두아르도, 169쪽.

지금까지 나는 그들이 의롭고 정의롭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D, 그들은 윤리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구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편을 드리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오 의로우신 하나님, 그의 살피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악인의 폭력을 그치시고 의인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그들은 윤리적이기 때문에 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합니다.

이제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지를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윤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별개의 점을 지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 170페이지, 그들은 의롭고 신실하며 윤리적이고 신권적입니다. 즉, 그들은 우주의 도덕적 행정가에 의한 의의 왕국의 설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은 하늘의 왕이 그에게 요구한 것 이상을 하늘의 왕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왕에게 공의를 베풀고, 압제받는 자를 구원하고, 압제하는 자를 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고, 억압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 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중의 왕이신 당신에게 정의를 수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별도의 솔루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신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눈에 그분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를 지키지 않는 행정관이 있으면 그 행정부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신 중심적이며 악인을 처벌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의로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찬양을 받는 것을 보는 신중심적인 목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변호를 기뻐하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치게 하소서. 자기 종들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내 허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평판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례로 그들이 전도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바로 이어집니다. 즉, 모든 남자나 여자에게 주님이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임을 보여줌으로써 땅의 회심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자들이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공의를 옹호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실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치욕 속에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거기에 인용문을 넣으려고 했어요. 또 다른 요점은, 그들은 정의롭고, 신실하고, 의롭고, 신권적이고, 신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며, 세상이 이스라엘에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기도가 언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으로 보여,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멸시를 참았다고 했습니다. 수치심이 내 얼굴을 덮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에게는 낯선 사람입니다.

당신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행해진 잘못은 하나님께 행해진 잘못입니다. 나는 기도가 동양적이라고 제안한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과장된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는 이러한 저주가 조건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Jay의 치하에 있습니다.

즉, 모든 처벌은 조건부입니다. 모든 심판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예언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유명한 성전 설교에서 그 점을 살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거기로 가고 싶다면. 그는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변하면 예언도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기도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적이 회개한다면 이러한 저주가 해제될 것이라는 조건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전하겠다. 그래서 나는 도공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가 물레를 돌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진흙으로 빚고 있던 항아리는 그의 손에서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그것을 자기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 토기장이의 행함 같이 이스라엘을 너희에게 행할 수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만일 내가 어느 나라나 나라가 뽑히고 찢겨지고 멸망되리라 선포하면 그리고 만일 내가 경고한 그 나라가 그 악을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켜 내가 계획한

재앙을 그 나라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민족이나 나라가 세워지고 심겨진다고 선포한다면,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 악을 행하고 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행하려던 선한 일을 다시 생각하리라. 그러므로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것이 멸망을 예언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선을 예언하고 백성이 악으로 변하면 선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종종 약속과 예언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통해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그들을 공격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그것을 의심한다. 그래, 그건 사실이야. 오른쪽.

나는 그것이 단지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마이크.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신성한 자비와 은총의 개념과 함께 변증법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자비와 은혜가 있으며 기도는 정치적입니다. 나는 그걸로 놔두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도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하며 교리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교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입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우리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외에 정의를 구하는 기도는 새 이스라엘에게는 부적절합니다. 이제 심판은 마지막 심판 날로 연기되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유명한 일러스트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이사야서 61장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사용한 것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 사이에는 엄청난 대조가 있습니다. 글쎄, 한번 살펴 보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맞습니다. 아니요, 1절부터 3절, 4절까지입니다. 좋아요.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것이다.

이제 누가복음 4장을 펴서 예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4.18절을 읽고 그 구절을 열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이것은 나사렛 성전에서 행하신 그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16절에서 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읽으려고 일어서시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주시더라.

그것을 풀어 보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기록된 곳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다음 그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돌려주었습니다.

대비가 보이나요? 그가 어디에서 잘라냈는지 보셨나요? 그는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구절 중간에 멈췄습니다. 6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고 나를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는 책을 말았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복수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멈췄다.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은 복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베푸는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대한 이해와 맥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적들이 구원을 얻고, 감옥과 모든 어둠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믿으며, 그분은 정의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요점은 그것들이 교리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이해한 결과 얻은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죄인을 더욱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 오늘날 그 나라는 육신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섯 번째 숫자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암시적 시편에 대한 강의입니다. 글썄, 나도 잘 안 들리는데.

나에겐 보청기가 두 개 있어요, 브리트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러 여기까지 와야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분석과 당신이 얻은 자격을 바탕으로 바빌론 사람들에 관한 시편 137편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아기를 때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A부터 L까지의 척도에서 그것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신권적입니까? 신 중심적입니까? 조금 있으면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어, 브리트니. 원하신다면 제가 시편 전체를 실제로 다룬 노트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시편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2편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거기 포플러 나무에 우리는 하프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납치한 사람들이 노래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우리에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기술을 잊게 하여라. 내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소서.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에 에돔 사람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것을 헐고, 그들은 그것을 기초까지 헐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빌론의 딸, 그
딸에 의해, 단지 a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도시라는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여성적이며 딸(daughter)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우리는
바빌론의 딸이었습니다.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NIV는 바빌론의 딸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멸망당할
바빌론의 딸.

복된 사람, 즉 우리가 논의하는 복된 사람, 미래에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당신에게 갚아 주시는 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너희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애통하는 회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래 부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것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에돔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연주할 능력이 없을 그의 손과, 더 이상 말하고 노래할
능력이 없을 그의 혀에 대하여. 시온의 멸망을 기뻐하는 에돔 사람들과 시온을
세운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Slack의 댓글은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Tu Nota Bene. 시온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곳이 구원의 장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을 파괴하고 조롱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의 함축 속에 고동치는 열정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양의 전쟁은 여자도 어린이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엄격한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 실천은 더 이상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보복을 종식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들의 아기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전의 성격이다. 엄격한 정의는 그 반대편에 있을 것입니다.

힘든 건 알지만 그게 바로 전쟁의 본질이에요. 게다가 예외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곧 율법에 의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 네가 들어가서 많은 민족 곧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여, 너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이여.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 여러분이 그들을 쳐부수면, 여러분은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며,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이 회개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법은 그녀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그녀가 바알과 가나안의 신들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 정탐꾼들을 숨겼을 때 그녀는 언약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다 지파에 속한 유대 사람 아간이 바벨론의 예복을 지키며 성전의 명령인 토라를 어겼을 때 그것은 약탈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부와 의복의 명성 등을 위해 그것을 위반하고 사용하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창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관점에서 법을 읽어야 한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단순히 법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전체 이야기이다.

일어난 일에 비추어 법을 해석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다윗과 밋세바는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단지 성경이 왜곡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지 않고 다만 율법에 따라 그들을 죽여야 했고 음녀와 간음하는 자를 마땅히 죽였어야 했는데 다윗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밋세바를 파괴할 수도, 순수함을 돌려줄 수도 없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행한 악을 회개하고 회개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성전을 헐고 은과 금을 빼앗아 노예로 삼으려고 그들을 약탈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 말은, 그것은 단지 사악하고 사악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든지 회개했다면 이 기도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저주가 모두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를 따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모든 미움은 아이들이 특정 맥락에서 자랐거나 교회 내 사랑의 맥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리트니 씨, 그것이 제가 그 매우 어려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에두아르도.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네, 하지만 그가 당신의 왕국이 칼과 함께 온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당신의 왕국이 당신 백성의 신실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임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그들이 이슬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로 왕국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은혜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징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슬람의 상징은 칼이다. 그것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의 급진적이고 급진적인 차이입니다. 전적으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인 토머스 제퍼슨은 이슬람을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해병대가 이렇게 높은 목걸이를 하는 이유는 튀니지인들이 칼로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슬람의 위험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연간 225,000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강탈 자금이 있었고 Thomas Jefferson이 마침내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몬테주마 홀에서 트리폴리 해안까지 바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지에서도 조국의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별 생각 없었는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매우 좋은. 가능하다면 Walke 박사님, 후속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교회의 반응과 국가의 반응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쎄요, 대통령직에 있고 ISIS에 맞서 싸우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질문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로 행동합니까? 비록 당신이 그 위치에서 교회를 대표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합니까?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로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직에 선출된 셈이다. 내가 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되어 그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정치 무대에 있고 따라서 정치 무대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을 사용하는 데에 어떤 모호함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잘못 본다면 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들은 이슬람을 보호할 준비가 너무 되어 있고 기독교인을 보호하지 않을 준비가 너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250,000명의 야지디족과 쿠르드족,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 아시다시피 교회 인구는 200만 명에서 30만 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곳의 신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중세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교황은, 교회를 대신하여 칼을 사용하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벨기에는 개신교를 모두 죽였기 때문에 대체로 로마 카톨릭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요.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생각이니 반드시 이기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 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분법을 만들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할 것이지만, 마귀를 물리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기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전신갑주, 곧 믿음의 영적인 갑옷과 성령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입혀야 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3, 저주의 시편입니다.